

자료제공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과  
 사진 박숙미(socialworker@welfare.net)

# 사회복지사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는다!

## 예비사회복지사 대상 사회복지사 선서식 가져

수원여자대학은 지난 11월 16일 졸업을 앞둔 2학년 학생 19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선서식을 가졌다.

사회복지사 선서식은 사회복지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복지사 윤리의식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수원여자대학에서 처음 실시하여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수원여자대학에서 사회복지사 선서식을 처음 기획, 시도한 안



향림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장은 “사회복지는 실천학문으로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 즉 사회복지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번 선서식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물론 사회복지교과과정에서도 수업과 실습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강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결혼식도 사실 실존에서의 의미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려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역시 선서식이라는 엄숙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키우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마인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안향림 학과장이 만들어 일본의 한 학술지에 소개되기도 한 사회복지사 선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사회복지자를 실천한다. 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마음을

다 할 것이며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알게된 개인이나 가족의 비밀을 전문직의 사명감을 갖고 지킨다. 나는 진심으로 사회복지 이용자를 위하여 타 전문직 및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조하며 나의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불편 할망정 불행할 필요가 없도록 저들의 심리적, 사회적 행복을 위하여 전문직을 수행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과 학생대표의 대표 선서로 예비 사회복지사 190여명이 함께 한 선서식은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또 선서식에 이어진 촛불의식은 학과 교수들이 예비사회복지사 한사람 한사람에게 촛불을 붙여주며 제자들이 복지마인드를 실천하

여 살기 좋은 세상으로 세상을 밝혀줄 것을 당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선서식에 참여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4대 가치관 중 가장 중요한 인간존중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라고 쓴 목걸이를 목에 걸고 선서식에 참여하였다. 또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가슴에 황금색과 자주색의 리본을 달았는데 황금색은 우리 대상자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자주색은 그들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의미 한다. ■